

2004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특징

2005. 1.

INVEST KOREA 

목 차

I. 요약	1
II. 2004년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유치의 주요 특징	2
1. 전반적인 동향	2
2. 산업클러스터 강화형 일본투자의 부상	3
3. 전통적인 서비스의 약진과 새로운 서비스의 부진	4
4. R&D 투자 동향	5
III. 글로벌 FDI 동향	8
1. 글로벌 FDI 추이와 전망	8
2. 업종별 특징	10
IV. 아시아 주요 투자유치 경쟁국 동향	14
1. 최근 아시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4
2. 아시아 지역의 투자유치 역점 분야	15
3. 중국과 인도의 투자유치 특성 분석	17
V.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동향	20
1. 외국인 직접투자 급증과 침체의 원인	20
2. 업종별 동향	22
3. 국가별 분석	25

I. 요약

□ 2004년 한국, 도전과 성취의 시기

- 외국인 직접투자 2003년 65억 달러에서 2004년 128억 달러로 2배 증가
- 최근 4년간의 하락세를 접고 반등의 기틀 마련
-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각각 62억 달러와 61억 달러로 균형
-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등 산업 클러스터 강화형 투자의 급증
- R&D 투자 유치 동향 고무적 결과 실현

□ 2004년 세계 FDI, 그 동안의 침체기에서 탈출

- 전 세계 FDI의 흐름이 2000년의 정점에서 계속 하락추세에 있었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 시현
- EIU의 전망에 따르면 2008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M&A를 제외하고 2004년 전 세계 업종별 FDI추세를 보면 비즈니스서비스가 1위를 차지
- 제조업에서는 화공, 자동차, 식·음료, 기계장치의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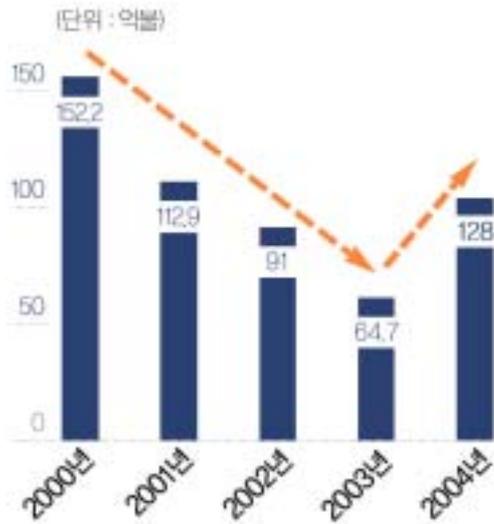
□ 아시아 지역, 중국 부동의 1위 그리고 인도의 추격

- 2003년까지 누계기준으로 중국은 5천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아시아에 유입된 금액의 1/3 차지
- 홍콩과 싱가포르가 그 뒤를 잇고, 한국은 6위를 기록
-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 이후 추세를 보면 아시아 전체로의 투자유입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만큼은 지속적인 상승세 시현
- 전 세계적인 순위에서도 중국은 화공과 자동차에서 인도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와 비즈니스서비스 부문에서 부동의 1위 유지

II. 2004년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유치의 주요 특징

1. 전반적인 동향

<그림 1> 최근 5년 외국인 직접투자



2004년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128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2003년 65억 달러에 비해 무려 98% 이상 증가한 우수한 실적이다. 도착기준으로는 9월까지 59억 달러가 유입되어 전년 동기의 42억 달러보다 무려 1.4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년은 그 동안의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새로운 상승기를 준비하는 전환점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2억 달러, 서비스업이 61억 달러를 기록하여 균형을 이루었다. 최근 3년간에 제조업의 비중이 25%대에 머물렀던 점과 비교해보면 제조업의 증가가 크게 두드러진다.

지역별로는 미국 47억 달러, 일본 22억 달러, 중국 11억 달러, EU 30억 달러로, 일본과 중국 두 나라가 EU 전체보다 더 많은 투자를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투자규모별로는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투자가 74억 달러, 1천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미만의 중대형 투자가 36억 달러, 1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형 투자가 1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1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에 달하였다.

투자형태별로는 신규투자가 48%를 차지하고 증액투자는 43%에 그쳤다. 이는 일차적으로 신규투자가 크게 증가한 때문이지만 증액투자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증액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투자성격별로는 M&A 투자가 43%, 신증설형 그린필드 투자가 49%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2004년의 투자유치는 제조업의 증가, 일본과 중국의 약진, 대형 신규 그린필드형 투자의 증대 등이 주요한 특징으로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 2004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100만 달러, %)

산업별 구성		투자국별 구성		투자규모별 구성		투자형태별 구성		투자성격별 구성	
제조업	6,211 (48.6)	미국	4,725 (37.0)	1억불 이상	7,438 (58.2)	신규	6,210 (48.6)	M&A	5,478 (42.9)
(부품소재)	4,282 (33.5)	일본	2,249 (17.6)	1천만불~1억불	3,606 (28.2)	증액	5,529 (43.3)	Greenfield	6,262 (49.0)
서비스업	6,126 (48.0)	EU	3,005 (23.5)	1백만불~1천만불	1,409 (11.0)	장기차관	1,031 (8.1)	장기차관	1,031 (8.1)
전기·가스·수도·건설	433 (3.4)	기타	2,791 (21.9)	1백만불 미만	317 (2.5)				
전 체	12,770	전체	12,770	전 체	12,770	전체	12,770	전체	12,770

주: ()내는 구성비
자료 : 산업자원부.

2. 산업클러스터 강화형 일본투자의 부상

2004년의 제조업 투자유치액 62억 달러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전기·전자가 29억 달러로서 47%를 차지하고, 화공이 14억 달러로서 23%를 차지하였다. 이 두 업종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2004년의 실적은 이 두 업종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운송장비가 9억 달러, 일반기계 및 장비가 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각각 14.5%와 5.6%를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전기·전자의 대약진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최근 3년간 이 업종은 연평균 5억 7천만 달러의 저조한 실적에 그쳤으며 그 결과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로 떨어졌다. 이와 비교해서 2004년에는 전기·전자 부문의 투자유치액만 29억달러에 달하였다. 최근 3년간의 제조업 전체 실적 평균이 23억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제조업 실적 증가는 상당 부분 전기·전자의 기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기·전자의 대약진에서 더욱 주목할 점은 2004년 실적의 50%가 일본의 기여라는 점이다. 일본의 전기·전자 투자액은 아사히글라스의 공장증설

과 소니의 삼성전자와의 합작투자에 힘입어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 밖에 미국이 3억 8천만 달러, 프랑스가 9천만 달러, 독일이 6천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특징은 LCD를 비롯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 산업클러스터 강화형 투자진출이 일본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국간의 산업협력 증진은 한일 FTA가 한창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이고 예의주시할 만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최근의 전자산업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동향

(단위: 100만달러)

투자가명	투자품목	프로젝트 규모 (금액)	신고시기 (금액)
Asahi Glass	LCD용 유리	320	'04년 2분기 (150)
Hoya Corp	LCD용 포토 마스크	52	'04년 3분기 (52)
Nikko Materials	LCD용 타겟재	10	'04년 3분기 (10)
Sumitomo 화학	편광필름, 컬러필터, 포토 레지스트	500	'03년 2분기 (51) '04년 1분기 (36)
Nitto Denko	LCD용 편광판	150	'04년 2분기 (15)
Lintec	반도체 및 LCD용 플라스틱 접착 테이프	50	'04년 3분기 (31)
Sony	LCD - TV	925	'04년 2분기 (554) '04년 3분기 (371)
Ulvac	반도체 및 LCD 생산기계	27	'03년 3분기 (2) '04년 3분기 (25)

자료 : Invest KOREA

3. 전통적 서비스의 약진과 새로운 서비스의 부진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있어서 유통과 금융 등 전통적 서비스는 약세를 나타내고 비즈니스서비스와 통신·운송·보관 등 새로운 서비스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전통적 서비스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2004년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총 61억 달러의 투자유입액 중에서 금융·보험이 32억 달러, 유통이 11억 달러를 기록하여, 이 두 업종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보험의 경우 미국이 27억 달러, 독일이 2억 달

러를 투자하였다. 미국의 경우 시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 GE 캐피탈의 현대 캐피탈 인수 등이 주요 투자내역이며 독일의 경우 부동산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투자가 주요 내용이다.

유통의 경우 영국이 5억 4천만 달러, 싱가포르가 1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영국은 e-Bay의 옥션 인수가 대표적인 사업내용이며 싱가포르의 경우 모토로라의 유통업 강화가 주요 투자 내용이다.

새로운 서비스로 지칭되는 비즈니스서비스와 문화·오락, 운송·보관은 각각 4억7천5백만 달러(7.8%), 4억7천만 달러(7.6%), 3억7천만 달러(6.0%)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서비스의 경우 미국이 8천만 달러, 일본이 6천만 달러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과 광고대행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오락부문에서는 미국이 3억 달러, 네덜란드가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미국은 골프장인수를 위해 네덜란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송·보관의 경우 네덜란드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1억 3천만 달러와 7천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전자는 현대상선을 인수한 것으로 외항운송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후자는 센트럴시티를 인수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이 주요 사업내용이다.

최근 세계 전체적으로도 직접투자의 주력이 서비스로, 특히 비즈니스서비스와 통신, 물류 등의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서비스 전체에 대한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새로운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투자증진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R&D 투자유치 동향

최근 우리나라 산업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혁신주도형 산업발전이 강조되고 R&D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외국기업과 관련기관의 R&D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치활동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등 3개 부처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의 경우 주로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로서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설립과 KAIST-카벤디쉬(연) 연구협력센터 설치를 들 수 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2004년 4월에 개소식을 가졌으며 현재 시설공사 및 연구인력 확보를 진행 중이다. KAIST와 카벤디쉬(연)은 4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1월에 연구협력센터를 개소하였다. 그 밖에 국립광학연구원(SOI)과 한국전기연구원 간에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공동연구사업을 협의하고, 프랫허친슨 암연구소와 유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정통부의 경우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와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 간에 나노기술과 전자태그(RFID)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계이며 내년 상반기 중 대덕연구단지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연구 분야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과 광전자공학기술, 나노 전자소자 시스템온칩(SoC) 등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의 융합기술, RFID 등의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 등 세 가지로 합의됐다. 가상시뮬레이션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는 독일 프라운호퍼 R&D센터도 국내에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민간기업들의 경우 대표적인 기업들로서 인텔, IBM, HP, 에질런트, 지멘스, 듀폰 등 6개사를 꼽을 수 있다. HP의 경우, 미국 월마트에 RFID 서버와 솔루션을 공급한 세계적인 RFID 기술 보유회사이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주파수를 이용해 ID를 식별하는 시스템으로서 유통, 보안, 홈네트워크, 동물추적, 환자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에 혁신을 몰고 올 획기적인 기술이다. 한국 HP는 여의도 본사에 KDC(한국개발센터)를 개설하고 5년간 3,000만 달러를 투자해 RFID와 모바일솔루션 분야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보통신부는 HP와의 공동사업에 정보화촉진기금 10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에질런트테크놀로지스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품개발 및 기술지원 등 핵심역할을 맡게 될 무선연구개발·마케팅 센터를 한국에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업은 전남 광주 지역에 고휘도(high brightness)의 LED(발광다이오드)생산기지를 설립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다국적기업 에질런트테크놀로지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통신, 전자, 생

명과학, 화학부문의 선도적인 첨단기술업체로 전 세계 110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2만 8천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다.

특히 최근 Invest KOREA와 R&D 인력 양성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MOU를 체결한 캐나다의 ATI Technologies Inc.는 그래픽 칩셋 제조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과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써 향후 5년간 한국에 약 1천만 달러의 투자와 함께 고급 연구인력 4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R&D 센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잘 정비돼 있는 IT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은 한국이 IT 분야의 테스트베드로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매력으로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또한 이들의 국내진출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R&D 센터의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연구인력 확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HP의 경우 내년까지 40명의 국내 연구원을 모집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모집한 연구인력은 10명에 그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똑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R&D 투자유치는 이제 시작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적어도 R&D 기관 유치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당장의 문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인력의 공급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R&D 자금지원의 경우 국내기업에게도 상당한 자금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고급의 국내 R&D 인력양성과 최첨단 기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적으로 R&D 센터 설립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Ⅲ. 글로벌 FDI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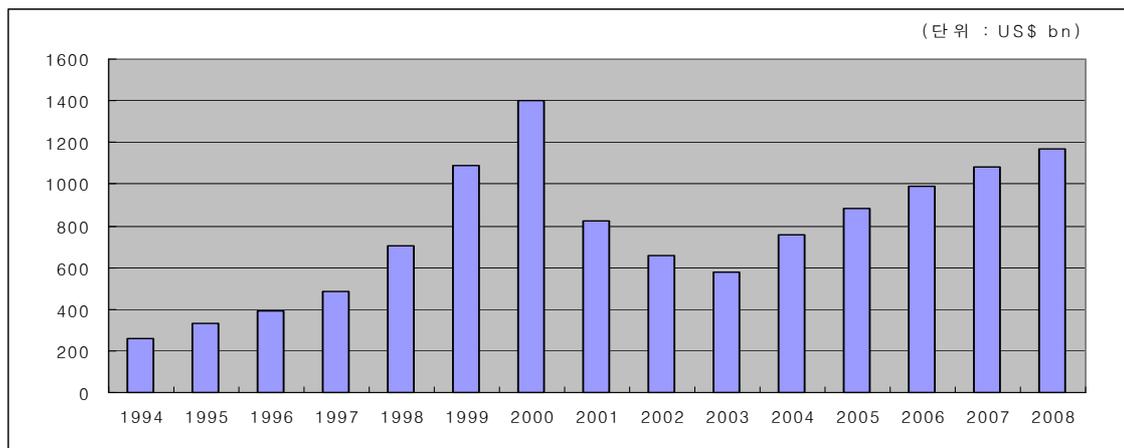
1. 글로벌 FDI 추이와 전망

□ 2004년은 3년간의 침체국면을 탈출, 새로운 상승기를 준비하는 전환점

2000년을 정점으로 급전직하로 위축되던 세계 직접투자는 2004년을 기점으로 반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직접투자는 6년 상승, 3년 하강 곡선을 그려왔다. 1994년 연간 투자규모가 2천억 달러에 불과했던 직접투자는 6년 동안 무서운 기세로 증가하더니 2000년에는 1조 4천억 달러로 증가했다. 당시 세계는 천정부지의 '투자 붐'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속에서 대규모의 직접투자를 순조롭게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이다. 이후 직접투자는 연속 3년간 거품이 꺼지듯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03년의 직접투자 규모가 6천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3년 새에 40%대로 줄어든 것이다.

2004년은 3년간의 감소세를 마감하고 새로운 상승기를 준비하는 전환점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세계의 직접투자 동향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인 영국의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세계 직접투자는 2004년부터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2). 금년 1월 초에 UNCTAD에서 발표한 2004년 전 세계 FDI 예상에 따르면 글로벌 FDI는 6천억 달러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글로벌 FDI의 추이와 전망(1994-2008)



주 : 2004년부터는 EIU의 전망치임.

자료: EIU, World investment prospects: The revival of globalisation?, 2004 edition, 8쪽.

□ 투자유치 상위 20대 국가의 투자유치 동향

2004년의 글로벌 FDI는 선진국에 유입되는 투자가 줄어든 대신 개발도상국과 동구권 국가에 유입된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2003년 대비 약 6%의 증가로 귀결되었다. 2003년 투자유치 세계 1위였던 중국의 경우 2004년 연말 현재 620억 달러를 유치하여 전년 실적 535억 달러를 넘어섰다. 2003년에 부진한 실적을 보였던 세계 최강국 미국은 2004년 중국보다 2배나 많은 1,210억 달러를 유치하여 다시 세계 1위의 투자유치국으로 복귀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가 2003년 대비 약 55% 증가한 데 힘입어 이 지역의 국가들은 대부분 전년보다 큰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어냈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2004년 실적이 전년의 2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멕시코, 캐나다 역시 작년 실적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의 투자유치를 기록하고 있다.

<표 3> 세계 20대 투자유치국의 2004년 투자유치 현황

(단위: 10억 달러)

순위	국가명	2000	2002	2003	2004
1	China	40.7	52.7	53.5	62
2	France	43.3	48.9	47.0	35
3	UnitedStates	314.0	62.9	29.8	121
4	Spain	37.5	35.9	25.6	6
5	Ireland	25.8	24.5	25.5	26
6	Netherlands	63.9	25.6	19.7	-
7	Italy	13.4	14.5	16.4	15
8	United Kingdom	118.8	27.8	14.5	55
9	Hong Kong, China	61.9	9.7	13.6	33
10	Germany	198.3	36.0	12.9	-49
11	Switzerland	19.3	5.6	12.2	-
12	Singapore	17.2	5.7	11.4	21
13	Mexico	16.6	14.7	10.8	18
14	Brazil	32.8	16.6	10.1	16
15	Australia	13.1	14.0	7.9	5
16	Austria	8.8	1.0	6.9	-
17	Canada	66.8	21.0	6.6	12
18	Japan	8.3	9.2	6.3	7
19	India	2.3	3.4	4.3	6
20	Poland	9.3	4.1	4.2	5
21	Korea, Republic of	8.6	2.9	3.8	9

주 : 상위 20개국에 포함된 벨기에/룩셈부르크, 버뮤다, 케이만 군도 등은 조세 회피지역 성격이 강하므로 제외하였음. 순위는 2003년 기준임.

자료: UNCTAD, Press Release, Jan. 11, 2005,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IMF, IFS, ifs.apdi.net/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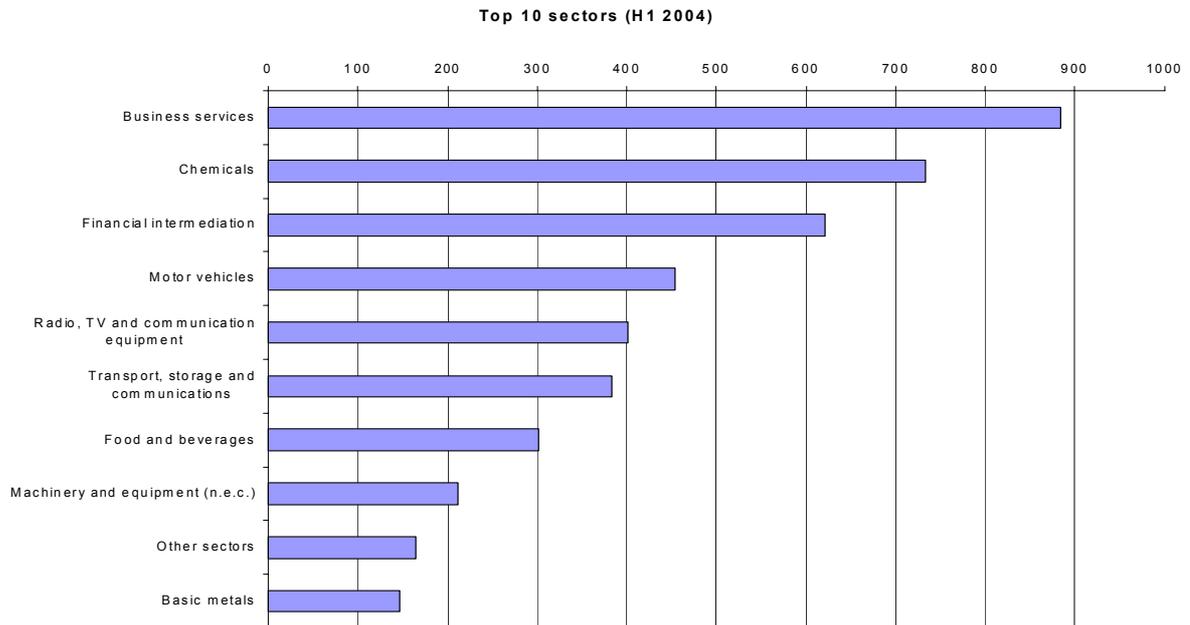
2. 업종별 특징 분석

□ 2004년 세계 직접투자 주도 10대 산업

2004년에 직접투자를 주도한 업종을 파악해보기 위하여 IBM의 사업컨설팅 부서의 하나인 IBM-PLI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직접투자 프로젝트(M&A형 투자는 제외) 집계결과를 살펴보면, 2004년 상반기 중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겠다고 발표한 프로젝트 수는 총 5,5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비즈니스서비스가 거의 900건에 육박하면서 1위를 차지하였다. 700건이 넘는 화공이 2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600건 정도), 자동차(450건), 전자(400건), 운송·보관·통신(약 400건)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상의 상위 6개 업종은 전체 프로젝트의 62%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식품·음료, 일반기계, 기타 업종, 1차 금속 등의 순서이다.

이상의 직접투자 상위 10개 업종은 금융과 자동차, 식품·음료와 운송·보관·통신 간에 순서가 바뀌는 것을 제외하면 2003년과 똑 같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비즈니스서비스와 금융이 순위도 높지만 증가세 또한 빠르다는 사실이다. 전체 프로젝트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90건 순 증가하였는데, 비즈니스서비스에서만 100건, 금융에서는 150건 이상이 증가하였다. 화공,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에 속하는 상위 업종들의 경우에는 화공과 전자가 작년 대비 약간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자동차는 오히려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증감 모두 소폭의 변화를 보이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최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이 FDI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 2004년 세계 직접투자 주도 10대 산업



자료: IBM-PLI, Global Investment Alert - H1 2004, 2004.9. 14쪽.

□ 서비스업이 세계 직접투자 증가의 견인차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직접투자 증가를 주도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서비스의 직접투자 증가는 9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 그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90년과 2002년 사이에 산업별 직접투자액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선진국의 경우 2002년에 직접투자 누계액은 5조 680억 달러이며 1990년과 2002년 사이에 3조 4,630억 달러가 증가했다. 이 기간에 제조업은 9,510억 달러, 서비스업은 2조 3,450억 달러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기여도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28%, 서비스업은 68%를 기록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선진국의 경우 90년대 증가한 직접투자의 2/3가 서비스업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제조업은 1/4 약간 넘는 정도의 기여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도국의 경우는 선진국보다는 제조업의 기여도가 더 크지만 서비스업의 기여가 절반을 넘어 부동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는 변동이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과 2002년 사이에 개도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액은 1조 9,580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그 중 제조업은 1/3을 조금 넘는 6,850억 원이 증가했으며 서비스업은 55%에 달하는 1조 700억 달러가 증가하였다. 이

에 따르면, 개도국은 비록 선진국보다는 제조업 투자 유치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 투자액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35%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은 투자유치액의 2/3 가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정도로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표 4> 선진국과 개도국의 산업별 투자유입 증가 현황

(단위: 10억 달러, %)

	선진국				개도국			
	1990	2002	1990-2002 증가분	기여도	1990	2002	1990-2002 증가분	기여도
전산업	1,604	5,068	3,463	100.0	346	2,303.9	1,958	100.0
제조업	651	1,602	951	27.5	156	840.6	685	35.0
서비스	785	3,130	2,345	67.7	163	1,233.4	1,070	54.7
기타	168.6	335.7	167	4.8	26.7	229.9	203	10.4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선진국의 서비스 투자유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를 5개 분야로 구분할 때 전통적으로는 금융과 유통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비즈니스서비스와 운송·통신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금융의 경우 추세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26%를 차지하여 비즈니스서비스 다음의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비즈니스서비스는 1990년에 3.5%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31.5%로 상승하였고 운송·통신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1%에서 16%로 급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유통과 금융을 전통적 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와 운송·통신을 새로운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진국의 이러한 변화추이는 몇 년의 시차를 두고 개도국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OECD 회원국의 서비스 산업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구성비 변화 추이

(단위: %)

	1990	1995	2000	2002
금융	44.6	37.8	37.1	25.7
유통	22.1	19.0	11.2	9.3
운송·통신	0.9	4.1	12.6	15.7
비즈니스서비스	3.5	20.0	31.3	31.7
기타서비스	28.9	19.1	7.7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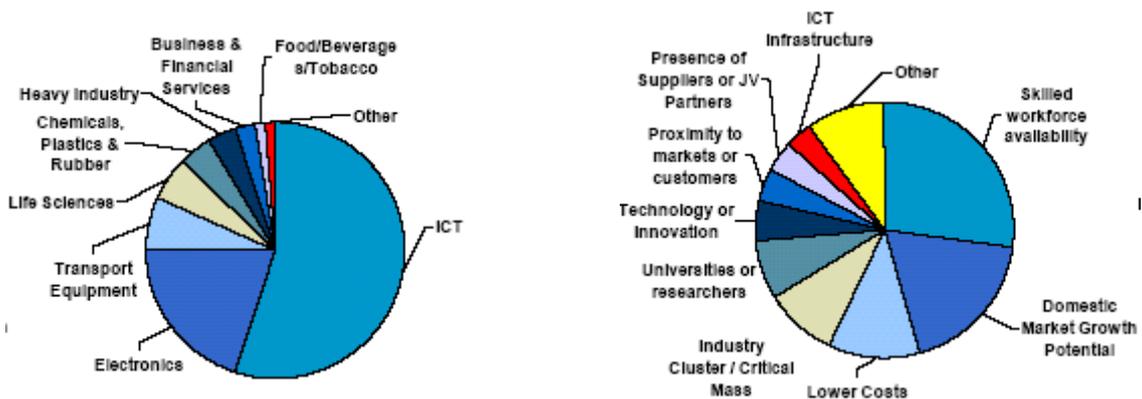
자료 : OECD, TRENDS AND RECENT DEVELOPMENT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2004.6. 12쪽

□ 개도국에 대한 R&D 직접투자 주력 업종과 투자동기

90년대 중반 이후 R&D의 글로벌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국적기업들의 개도국에 대한 R&D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OCO 컨설팅사가 2002-03년 중에 개도국에 투자한 80건의 R&D 직접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어느 업종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투자 동기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투자업종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ICT 업종과 전자가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운송장비, 바이오 등 보건, 화공 및 플라스틱·고무 등이 주요한 업종으로 제시되고 있다.

투자동기와 관련해서는 숙련인력의 가용성과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저비용, 산업집적도, 대학 또는 연구인력, 기술 또는 혁신, 시장 접근성, 부품 등의 공급자, IT 인프라 등의 순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4> 개도국에 대한 R&D 투자동기 <그림5> 개도국에 대한 R&D 투자 업종



자료: OCO Consulting, Export-oriented services: FDI in developing countries, 2004.1월, 8쪽.

IV. 아시아 주요 투자유치 경쟁국 동향

1. 최근 아시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아시아 지역은 2003년 누계액 기준으로 전 세계 투자액의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1998년 이후의 구성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의 투자유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1%와 15% 사이에서 움직이는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했다. 그러다가 2003년에는 20%를 넘었으므로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향후 이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19% 미만의 저조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2003년 누계액 기준으로 각국의 순위를 살펴보면 중국은 5천억 달러를 기록하여 수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투자유입액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를 1,50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하여 홍콩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75억 달러를 기록하여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유입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에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다음면의 <표 6>과 같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를 3개로 나눈 기간 동안에 투자유입액이 꾸준히 증가한 나라는 중국과 인도 둘 뿐이다. 주목할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아시아 전체의 투자유입액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부동의 수위이므로 순위가 변동이 없겠지만 향후 인도의 순위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2003년의 연간유입액 비중이 누계액 비중보다 낮은 나라는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홍콩 등으로서 이들은 전체적인 비중과 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끝으로, 싱가포르, 일본, 우리나라 등 3개국은 구성비의 변화추이 등을 감안할 때 아직 유동적인 상태라고 보여 진다.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구성비는 낮아졌다가 상승한 반면 일본은 높아졌다가 하락한 경우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인도는 아시아의 새로운 투자유치처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대만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중국 급성장의 영향으로 투자유입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3개국

은 현재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으며 투자유치에 있어서 중국과의 경합성이 크지 않아 중국의 영향보다는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향후 성과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표 6>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1998-2003)

(단위: 10억 달러, %)

	2003년 누계액		유입액(연평균)			유입액(연평균) 비중		
	금액	비중	1998-2000	2001-2002	2003	1998-2000	2001-2002	2003
아시아	1,551.2	100.0	128.4	110.9	113.4	100.0	100.0	100.0
중국	501.5	32.3	42.2	49.8	53.5	32.8	44.9	47.2
홍콩	375.0	24.2	33.8	16.7	13.6	26.3	15.1	12.0
싱가포르	147.3	9.5	13.7	10.4	11.4	10.6	9.4	10.1
일본	89.7	5.8	8.1	7.7	6.3	6.3	7.0	5.6
말레이시아	59.0	3.8	3.5	1.9	2.5	2.7	1.7	2.2
한국	47.5	3.1	7.7	3.3	3.8	6.0	3.0	3.3
태국	36.9	2.4	5.6	2.4	1.8	4.4	2.2	1.6
대만	33.9	2.2	2.7	2.8	0.5	2.1	2.5	0.4
인도	30.8	2.0	2.4	3.4	4.3	1.8	3.1	3.8

자료: UNCTAD

2. 아시아 지역의 투자유치 역점 분야

투자유치 분야를 기능별로 제조, R&D, 콜센터 등 부수적 업무, IT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4개로 구분할 때 개도국과 아시아 지역은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직접투자의 기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의 경우 개도국의 비중도 낮고, 개도국 중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구체적으로 2004년의 경우 제조 기능을 위한 직접투자 프로젝트 1,174건 중에서 아시아 개도국으로 온 비중은 대략 14%, 160건 정도이다. 제조업 투자유치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나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치전략 수립을 보다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R&D 기능의 경우 개도국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나 아시아의 비중은 가장 높은 80%대를 유지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R&D 센터 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것이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한다는 면에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부수적 업무(Front & back Office의 번역으로 콜 센터, 기술지원센터, 공유서비스 센터 등을 포괄함) 및 IT 아웃소싱에 대한 개도국 비중은 모두 50%를 상회하고 있고 아시아 비중은 7-80%대를 기록하고 있어 이들이 아시아 개도국들에 적합한 사업인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아시아 지역은 투자유치에 있어서 부수적 업무와 IT 아웃소싱 기능의 유치에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투자유치는 대부분 영어가 능숙하고 인건비가 싼 인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R&D에 대한 투자는 개도국으로 오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아시아로 몰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개도국에 대한 R&D 투자 자체가 별로 크지 않고 또한 최근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직접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 기능의 경우 개도국에는 1/4 정도만 유입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정도만 아시아로 오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제조 기능이 소비지역과 인접해 있는 경향이 크다는 점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이 다른 3개 기능과는 달리 제조 기능에서는 독점적 우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 기능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한다면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 7>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분야별 비중 변화 추이

(단위: 건, %)

	글로벌 FDI 프로젝트			개도국 비중			개도국 중 아시아·태평양 비중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전체	5,699	9,314	3,523	40%	36%	38%	38%	48%	52%
제조	1,966	3,193	1,174	29%	26%	26%	39%	51%	52%
R&D	326	517	243	55%	37%	29%	89%	84%	86%
부수적 업무*	183	262	95	43%	52%	62%	65%	64%	85%
IT 아웃소싱	78	106	40	50%	52%	65%	72%	78%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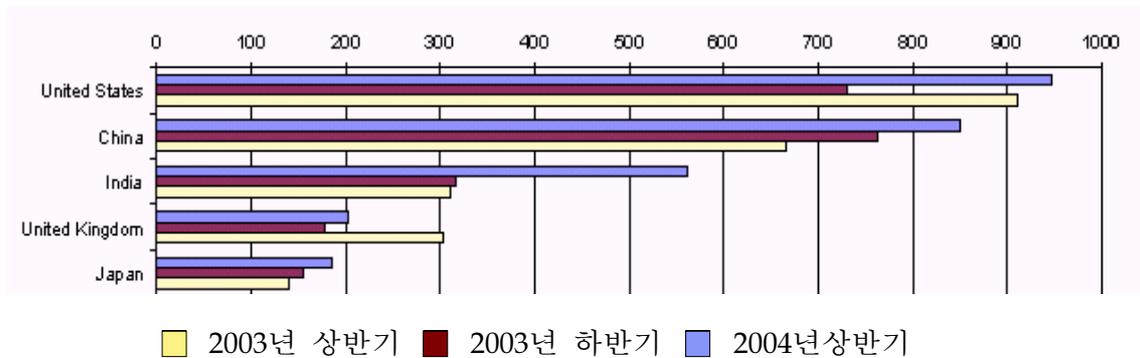
주 : * Front & back Office의 번역으로 콜센터, 기술지원센터, 공유서비스 센터 등을 포괄함.

자료: OCO Consulting, Eastwards : The relocation of manufacturing and services, 2004.6.4쪽

3. 중국과 인도의 투자유치 특성 분석

앞에서 보았듯이 중국과 인도는 세계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투자유치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과 인도의 상승세는 금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를 대상으로 한 IBM-PLI의 직접투자 프로젝트 조사 결과 중국과 인도는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6> 2004년 세계 5대 투자유치국 현황



자료: IBM-PLI, Global Investment Alert - H1 2004, 2004.9. 4쪽.

이들 두 나라의 특징은 어느 업종에서 누가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드러난다. 금년 상반기 중 직접투자 프로젝트가 가장 많았던 비즈니스서비스의 경우 인도가 중국을 앞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에서도 인도가 중국을 앞섰다. 반면, 화공과 자동차에서는 중국이 1위를 차지하였다. 금융과 전자부품은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에서는 인도가 5위권에 들지 못하고, 화공에서는 4위를 차지한 반면, 중국은 모든 서비스에서도 5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인도는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으면서 서비스에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8> 주요 업종별 투자유치 상위 5개국 현황 (2004년 상반기)

업종	상위 5개국				
사업 서비스	인도	미국	중국	영국	호주
항공	중국	미국	일본	인도	브라질
자동차	중국	미국	브라질	헝가리	멕시코
금융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영국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인도	영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전자부품*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러시아

주 : *는 2004년 1/4분기 실적임

자료: IBM-PLI, Global Investment Alert - H1 2004, 2004,9.

중국과 인도의 특징을 위에서와 같이 각각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찾을 수도 있지만, 기업들의 해당국가 선택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면서 찾을 수도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내수시장과 저비용 노동 측면에서 중국의 우위가 절대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100명 중 49명과 50명이 각각에 대해 중국이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급 숙련노동과 R&D 활동에 대해서는 각각 6명과 11명이 중국을 매력적이라고 답했을 뿐이다. 한편, 인도의 경우 아웃소싱 기회와 관련하여 46명이 인도가 매력적이라고 답했으며, 고급 숙련노동과 R&D 활동의 경우 각각 30명과 24명이 답했다. 이러한 양국간 투자 매력도 비교분석은 양국간 투자유치 특화구조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즉, 중국은 시장과 비용에서의 절대 우위를 토대로 제조기능, 혹은 제조업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적절한 반면, 인도는 아웃소싱 기회, 고급 숙련노동, 저비용 노동, R&D 활동 등에서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다국적기업의 입지선택 요소별 국가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중국	인도	일본	미국	EU	영국	신규 EU 가입국	러시아	브라질
내수시장	49	9	2	7	9	2	15	5	4
저비용 노동	50	29	0	1	2	0	12	3	3
파트너쉽 가능성	20	12	5	14	22	4	14	5	3
기업인수 시장	23	7	3	17	22	3	15	5	4
고급 숙련노동	6	30	7	14	22	6	10	3	2
아웃소싱 기회	16	46	1	7	9	2	12	3	4
인수 기회	15	8	2	13	20	5	22	5	9
R&D 활동	11	24	5	22	20	7	6	4	3
공급사슬상의 효율성	17	10	6	22	26	5	9	2	3

자료 : EIU, World investment prospects: The revival of globalization?, 2004 edition.

V.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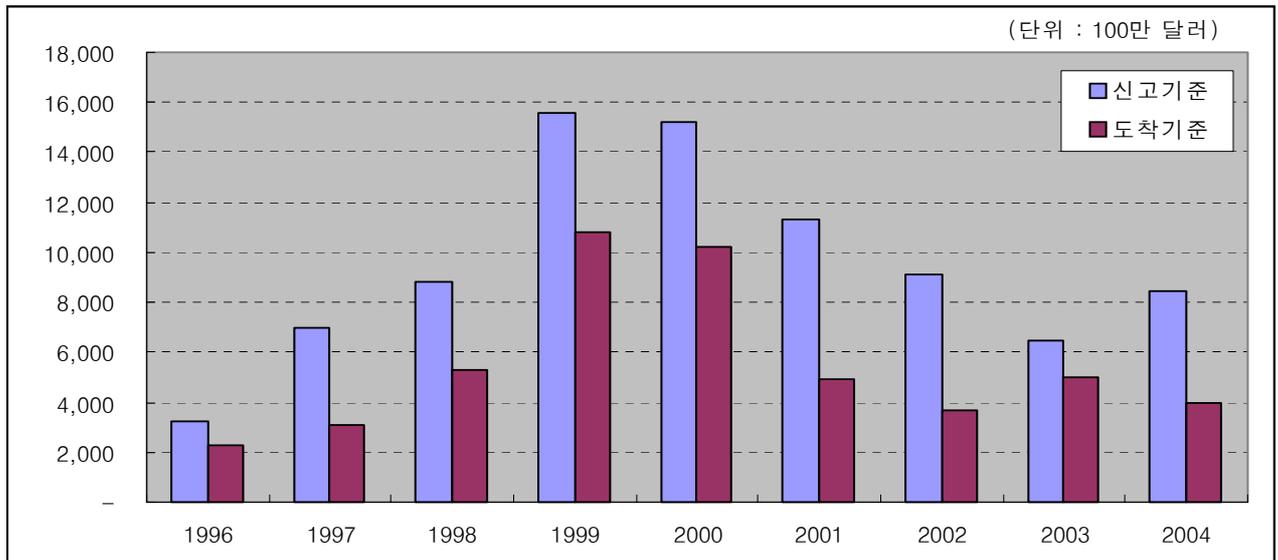
1. 외국인직접 투자 급증과 침체의 원인

□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세와 가파른 하락세의 뚜렷한 명암 교차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환위기가 발발한 다음 해인 1998년부터 5년 동안 외화 도착기준으로 300억 달러 이상 유입되었다. 이 5년 동안에 유입된 외국인투자는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합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투자유치 역사상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금융, M&A, 토지, 규제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개방과 자유화를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투자유치 체계를 확립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판다'는 각오로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국가 전체의 필사적인 노력은 앞에서 보았듯이 당시 직접투자의 붐을 이루고 있던 호조건의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을 고비로 외국인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2002년과 2003년에는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귀한 듯한 저조한 실적으로까지 떨어졌다. 처음에는 하락세가 일시적인 듯이 보였으나 이제는 이것이 '정상 상태'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침울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듯한 움직임이 2004년에 비로소 전개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추이는 앞에서 살펴본 세계 전체의 흐름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올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듯한 모습도 세계 전체의 양상과 일치한다. 세계 전체적으로 직접투자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1-2년은 우리나라의 투자유치가 다시 과거로 주저앉느냐 아니면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이냐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의 변화 추이(1998-2004)



주 : 2004년의 경우 도착기준은 3/4 분기까지의 실적임.

자료: 산업자원부.

□ 투자급증기와 투자침체기의 차이는 제조업 투자유치 성과의 차이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투자급증기와 투자침체기 간의 차이는 제조업 투자유치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가 줄어든 데서 찾아진다.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을 투자가 급증했던 전기 3년과 투자가 급감한 후기 3년으로 구분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전체 투자유치액은 투자급증기에 연평균 134억 달러, 투자침체기에 90억 달러를 기록하여 44억 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제조업 투자유치액은 같은 기간에 각각 71억 달러와 23억 달러를 기록하여 47억 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비제조업의 투자유치액은 63억 달러에서 66억 달러로 증가하여 제조업과는 반대로 오히려 3억 달러가 순증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급증기에 50%를 넘었던 제조업의 비중은 투자침체기에 20%대로 급락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투자유치 감소가 전체의 감소를 초래한 원인임에 분명하다.

<표 10> 투자급증기와 투자침체기 간의 산업별 외국인투자 실적 비교

(단위: 100만 달러, %)

	금액(신고기준)			비중		
	전체	제조업	기타	전체	제조업	기타
1998-2000 연평균 (A)	13,361	7,063	6,298	100.0	52.9	47.1
2001-2003 연평균 (B)	8,953	2,315	6,639	100.0	25.9	74.1
(B)-(A)	-4,408	-4,749	341	-	-27.0	27.0

자료: 산업자원부

이처럼 제조업 투자유치 실적이 크게 변한 것은 사실 제조업에 속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구조조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2000년까지 재벌기업들은 높은 부채비율과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열사나 사업부문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각하거나 합작방식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데 적극 나섰다. 실제로 1998-99년 2년간 당시 30대 재벌기업들은 제조업 부문에서 78억 달러(신고기준)를 유치하였다.

만약, 외환위기 이후의 외국인투자 급증과 침체가 대부분 제조업 부문의 재벌기업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라는 특수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투자급증기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투자유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인 현상이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투자침체기의 저조한 투자유입이 우리경제의 '정상적인' 모습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투자유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자생적인 투자유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업종별 분석

□ 제조업 업종별 구성 및 변화 추이

2004년 말 기준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액은 신고기준으로 460억 달러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150억 달러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화공이 8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8%, 운송장비와

일반기계가 각각 49억 달러와 4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4개 업종은 우리나라 제조업 투자유치의 주력 업종으로서 전체의 2/3를 상회한다. 그 밖에 식품, 제지·목재, 금속 등이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도 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누계액에서의 업종별 구성비와 최근 3년간의 투자유입액에서의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어느 업종이 성장세 또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전자, 화공, 운송용 장비 등 투자액 구성비가 높은 주력업종들이 여전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운송용 장비의 경우 누계액 구성비는 10.7%인 반면 최근 3년간에 있어서는 15.8%를 나타내고 있다. 하위 업종에서는 금속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표 11> 제조업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구성 및 변화 추이

(단위: 100만 달러, %)

업종	2004년 누계		2002-2004년(연평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제조업	45,943	100.0	3,415	100.0
전기·전자	15,013	32.8	1,253	36.7
화공	8,329	18.2	736	21.5
운송용장비	4,934	10.7	539	15.8
일반기계	4,370	9.5	274	8.0
식품	3,783	8.2	69	2.0
제지·목재	2,536	5.5	36	1.1
금속	2,304	5.0	254	7.4
비금속광물	2,031	4.4	74	2.2
의약	965	2.1	76	2.2
섬유·의류	873	1.9	26	0.8
기타제조	802	1.7	78	2.0

자료: 산업자원부

□ 서비스 업종별 구성 및 변화 추이

2004년 말 기준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액은 신고기준으로 520억 달러로 제조업보다 60억 달러 정도 많다. 업종별로는 유통과 금융·보험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음식·숙박, 문화·오락이 상위 업종을 구성하고 있다. 유통은 157억 달러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보험은 146억 달러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업종은 앞에

서 보았듯이 서비스의 전통적 주력업종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은 음식·숙박과 문화·오락은 각각 54억 달러와 53억 달러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4개 업종은 전체의 80%에 약간 못 미치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주목할 것은 새로운 서비스로 불리는 비즈니스서비스와 운송·보관·통신 등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진하다는 사실이다. 비즈니스서비스는 33억 달러를 기록하여 6%, 운송·보관과 통신은 각각 17억 달러와 14억 달러를 기록하여 모두 3% 내외의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누계액에서의 업종별 구성비와 최근 3년간의 투자유입액에서의 구성비를 비교하여 어느 업종이 성장세 또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전통적 서비스의 투자유치 주도업종인 유통과 금융·보험은 상반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유통은 확연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금융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3년간에 있어서 금융은 38%의 구성비를 차지하여 유통을 누르고 1위로 올라섰다. 새로운 서비스로 불리는 운송·보관과 통신, 비즈니스서비스는 큰 폭은 아니지만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문화·오락, 음식·숙박 등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서비스는 제조업과 달리 최근 3년 동안에 큰 폭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제조업에서는 연평균 34억 달러가 유입되었지만 서비스에서는 제조업의 1.5배에 달하는 51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따라서 서비스의 업종별 변화추이는 위에서 지적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새로운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즈니스서비스와 운송·보관·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서비스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구성 및 변화 추이

(단위: 100만 달러, %)

업종	2004년 누계		2002-2004년(연평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서비스업	52,166	100.0	5,130	100.0
유통	15,679	30.0	887	17.3
금융·보험	14,552	27.9	1,961	38.2
음식·숙박	5,365	10.3	360	7.0
문화·오락	5,256	10.1	285	5.6
비즈니스서비스	3,294	6.3	342	6.7
부동산·임대	3,162	6.1	389	7.6
운송·보관	1,756	3.4	302	5.9
공공·기타서비스	1,712	3.3	398	7.8
통신	1,389	2.6	206	4.0

자료: 산업자원부

3. 국가별 분석

□ 투자국별 구성 및 변화 추이

2004년 말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액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주 지역이 403억 달러로 39%, EU가 306억 달러로 30%, 아주지역이 305억 달러로 29%를 차지하고 있다. 서구 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접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인접지역인 아주지역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 상위 7개국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순이다. 미국은 323억 달러로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5억 달러로 15%, 네덜란드는 118억 달러로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세 나라가 전체의 57%를 차지하는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대부분 라부안 등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제3국 기업들이 투자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는 없다.

위에서 살펴본 누계액에서의 구성비와 최근 3년간의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미주지역은 건실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EU와 아주지역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별로는 미국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미국은 최근 3년간에 연평균 35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에서의 비중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누

계액 비중이 31%이므로 1.2배에 해당된다. 반면, 일본은 최근 3년 평균과 누계액 비중이 모두 15%를 나타내어 평균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통상 인접 선진국의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의 나라들도 영국을 제외하고는 최근 3년간에는 모두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국가들의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향후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추세적으로 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므로 이러한 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투자가 크게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일반적인 경향과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인데, 이들의 투자가 부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다.

<표 13> 투자국별 외국인직접투자 구성 및 변화 추이

(단위: 100만 달러, %)

업종	2004년 누계		2002-2004년평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전 세계	103,890	100.0	9,447	100.0
미주지역	40,303	38.8	3,969	42.0
EU(25개국가)	30,682	29.5	2,582	27.3
아주지역	30,538	29.4	2,680	28.4
미국	32,260	31.1	3,488	36.9
일본	15,509	14.9	1,398	14.8
네덜란드	11,830	11.4	640	6.8
말레이시아	6,661	6.4	265	2.8
독일	6,060	5.8	379	4.0
영국	3,474	3.3	543	5.7
프랑스	3,450	3.3	147	1.6

자료: 산업자원부